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6년 3월 31일(목) 17:00-20:00
- 장 소 :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3층 강당
- 참 석 인 원
장재승 관장 (위원장), 박상신(운영위원), 이명호 의원(운영위원),
이영민 교수(운영위원), 이태호 부장교사(운영위원)
김정민 실장(간사) 총6명
- 회 의 안 건
 - 2015년 지역자활센터 주요 사업 보고
 - 2015년 지역자활센터 결산 심의, 승인
 - 2016년 지역자활센터 사업 및 예산 심의, 승인
- 기 타 안 건
 - 자활사업 및 센터 홍보 방안

□ 개 회 : 각 위원님들 소개하며 각자의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말을 약 5분간 마침

□ 내 용

- * 장재승 위원장으로부터 위원들의 회의 안건 순서결정에 대하여 가부를 물어 원안대로 진행함을 동의를 얻어 사업관련 전반적인 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김정민 간사가 브리핑하며 설명을 함(약20분)
- * 사업 브리핑 후 장재승 위원장의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도 진행함.

* 이하 존칭 생략

- 위원장 : 위원님들 센터 및 사업 관련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태호 : 2016년 신규 사업인 광택사업의 경우 일반 승용차만 광택을 내는 건가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예정인가요?
- 간 사 : 강서구에 서울 오토프라자, 한성 자동차 등 중고차 매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과 연계하여 타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이영민 : 가양역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생긴 것 같은데 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그 쪽과도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 위원장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초기 상담시 대상자들을 판단하여 점수로 체점하고 70점 이상의 경우 노동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고 70점이하에도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노동부에서 개입을 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근로하기 어려운 분들이 연계가 되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참여시 게이트웨이를 통해 의뢰가 들어오게 되고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인 부분의 모니터링 후 사업단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 이명호 : 올해 자활기업 출범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 위원장 : 자활기업의 경우 대상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 부분으로 사업단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쉽게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3개 정도의 자활기업을 출범할 예정이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전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 없어 자활기업으로 출범하고자 하는 분들 중 의지가 높으신 분들에 한해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도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사 한명이 사례관리도 하며 사업도 운영

하였지만 현재는 팀제로 바뀌어 자활사업팀, 사례관리팀, 총무팀 3개의 팀으로 나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과거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했던 판정회의를 게이트웨이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정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민 : 요즘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 아이템 시장조사 할 경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애견과 관련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2008년에 사업을 진행 했지만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텔식으로 운영하기도 했고 애견만이 아닌 애완으로 확대하려고 하였으며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유기견 관련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였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영민 : 그때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사업도 시기가 맞아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추후에 신규 아이템을 결정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접근해보도록 하겠으며 자활센터에 대한 홍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박상신 : 홍보는 강서구에 있는 3개 기관이 협조하여 뉴스레터, 까치신문 등 아파트에 배포되는 신문에 홍보 기사를 실어서 홍보를 진행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 지속적인 홍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태호 : 전년도 법인 전입금을 왜 이월시켜 사업을 진행하나요?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 년도에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매년 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인가요?

- 위원장 : 법인 전입금의 경우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금액으로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천만원 보다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들어온 예산을 전부 사용 하게 될 경우 내년 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상신 : 회의 자료집 P20의 자활사업의 인건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외에 직원들 인건비만 작성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월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나요? 이 분들은 퇴직금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 위원장 : 보고 계신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인건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으며 80~9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며 이분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이태호 : 예산 및 사업진행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 같습니다. 저는 2015년 지역자활센터 결산부분과 2016년 예산 부분에 대해 승인하고 동의합니다.
- 박상신 : 재청합니다.
- 이영민 : 저도 재청합니다.
- 이명호 : 저 역시 재청합니다.
- 위원장 : 네. 이태호 위원님의 동의와 전체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2016년 사업 및 예산이 통과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전하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 참석위원 전원과 위원장의 폐회 제의로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17시 50분이 되다.

■ 안전심의결과

안전번호	안 건	심의결과
1	2015년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주요 사업 보고	보고
2	2015년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결산 심의·승인	승인
3	2016년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사업 및 예산 심의·승인	승인

상기 결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2016년 3월 31일

위원장 : 장 재 승

위 원 : 박 상 신

박 양 삼

이 명 호

안 순 복

이 영 민

이 태 호

간 사 : 김 정 만